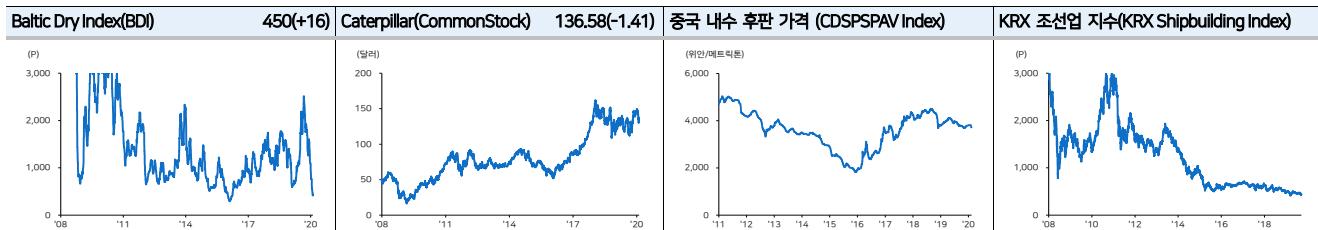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4,796.4	19.7	294,500	-1.0	-7.4	-8.7	-12.9	13.3	9.5	0.6	0.6	4.6	6.1
한국조선해양	8,174.3	17.8	115,500	0.4	-9.8	-0.4	-8.7	38.1	31.4	0.7	0.7	1.9	2.1
삼성중공업	4,195.8	18.4	6,660	0.3	-10.1	-3.1	-8.4	-4.0	335.2	0.7	0.7	-16.0	0.3
대우조선해양	2,690.9	12.3	25,100	-0.6	-5.6	-8.2	-9.9	24.2	30.3	0.7	0.7	2.5	1.7
현대미포조선	1,633.6	12.5	40,900	-1.0	-14.6	-3.7	-11.2	19.0	17.3	0.7	0.7	3.7	4.0
한진중공업	396.4	20.8	4,760	-1.3	-0.7	-2.8	-4.5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2,958.4	19.4	30,350	-0.7	-7.9	-19.3	-10.9	13.5	16.6	2.5	2.3	19.2	1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80.9	22.4	32,600	-1.5	-6.3	-17.3	-7.0	13.5	13.0	0.7	0.6	4.9	5.1
LIG넥스원	606.1	4.6	27,550	-1.1	-6.9	-18.6	-12.8	N/A	N/A	N/A	N/A	N/A	N/A
현대로템	1,313.3	3.9	15,450	-2.2	-4.9	-5.8	-1.0	-7.1	260.1	1.5	1.5	-19.2	0.4
현대엘리베이터	1,640.1	22.3	60,300	-2.1	-14.7	-21.3	-11.7	33.1	21.5	1.8	1.7	5.0	7.7
두산중공업	1,428.2	7.4	5,800	-3.7	2.5	2.5	1.4	-16.2	11.1	0.4	0.4	-3.4	4.7
두산밥캣	3,017.5	26.2	30,100	-0.8	-7.8	-5.7	-12.4	10.0	9.3	0.8	0.7	7.8	8.0
두산인프라코어	1,024.2	14.7	4,920	-1.0	-6.5	-13.2	-11.4	3.8	3.8	0.4	0.4	12.6	10.8
현대건설기계	472.8	10.2	24,000	-1.2	-21.7	-17.0	-19.7	7.0	5.9	0.4	0.4	5.1	6.5
현대일렉트릭	365.9	5.8	10,150	-1.9	-13.6	16.5	-12.1	-2.1	196.2	0.4	0.5	-14.2	-0.6
하이록코리아	210.3	46.6	15,450	-0.3	-13.0	-9.9	-19.5	N/A	N/A	N/A	N/A	4.5	4.8
성광밴드	257.4	19.9	9,000	-1.1	-13.9	-9.5	-13.0	34.7	21.2	0.6	0.6	2.4	2.9
태광	249.4	15.1	9,410	-2.2	-13.3	-3.5	-7.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84.7	5.2	10,550	-1.9	-3.2	8.7	0.0	17.8	8.0	3.0	2.2	19.7	32.9
한국카본	391.3	12.9	8,900	-0.1	8.7	21.8	13.7	32.3	11.7	1.3	1.2	4.3	10.0
태웅	147.5	4.8	7,370	-1.3	-9.9	-18.2	-17.1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34.3	2.6	4,075	-0.7	-12.1	-9.8	-8.8	-5.5	27.8	0.6	0.6	-11.1	2.2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our shipyards submit final LNG newbuilding offers to Qatargas

이번 주 Qatargas의 LNG선 건조 프로젝트에 4개의 조선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됨. LNG선 80척, 150억달러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에 조선 빙 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참여했으며 중국의 Hudong-Zhonghua Shipbuilding도 참여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중고 탱커 가격 예상과 달리 상승세

수에즈맥스 및 아프라맥스 탱커 구매 욕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중이라고 보도됨. 10년생 수에즈맥스 탱커 가격은 척당 3,750만달러(+4% WoW)로 올랐고 5년생 아프라맥스 탱커는 4,250만달러(+3.6% WoW)로 올랐다고 보도됨. 다만 선령이 높은 선박에 비해 선령이 낮은 선박은 현재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철광석값 올라도...철강vs조선업계 "후판 가격 양보 못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선박용 철강재인 후판가격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철강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선업계는 시황 회복이 더디다며 맞서고 있다고 보도됨. 철강업계는 지난해 사실상 후판가격을 동결했다고 보도됨. (데일리안)

US sanctions Rosneft over Venezuela imports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Rosneft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수출하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됨. 트럼프 정부는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마두로가 여전히 러시아, 쿠바, 중국 운행을 통해 자금력을 유지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Germany battles to remain top dog despite dwindling fleet

독일 선주들과 브로커들이 한 목소리로 독일 내 선사들의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독일은 용선 제공 선주들이 보유 중인 2,354척(998만TEU) 중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큰 순. 그러나 운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수백 척이 매각되었고 아시아 선주들의 용선 시장 내 위상이 상승하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탈원전 3년, 두산중공업 대규모 감원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45세 이상 명예퇴직이라는 조고강도 카드까지 꺼냈으며 명예퇴직자가 1,000명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 직원 6,700명 중 45세 이상 직원은 2,600여명(39%)으로 알려짐. (조선일보)